

A-4. 자가유리치은이식과 상피하결합조직이식을 이용한 치근면피개술

김우영*, 이만섭, 권영혁, 박준봉, 허익

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치근면의 노출은 치아의 정출이나 치은퇴축으로 발생하며 근본적으로 백악범랑경계하방의 부착상실로 인해 야기된다. 부착상실은 치주염, 치아의 순측면 이동, 치아외상에 의한 골열개에 기인하거나 긴 상피부착부위에 외상이나 어떠한 원인으로 치은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을 때 발생한다. 부착상실이나 골열개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술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. 그러나 치주조직의 염증이 소실되고 외상력이 조절되어 치은퇴축이 정지된 경우라도 심미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지각과민으로 인해 효과적인 구강위생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치주염 및 치근우식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. 이를 해결하고자 심미성과 예방적 차원에서 국소적으로 노출된 치근면에 대한 다양한 외과적피개술이 고안되었으며, 높은 성공률이 보고되었다. 이번 임상증례는 교정치료 후 발생한 노출된 치근면에 두꺼운 자가유리치은이식을 이용한 경우와 치태침착과 연화된 상아질을 가진 치은퇴축부위에 상피하결합조직이식을 이용한 경우로 심미적,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.